

역전 경주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해 아침의 시작을 끊는 거라 하면, ‘뉴이어 역전’은 아닐까요? 역대 최다 우승 횟수를 자랑하는 미야자키의 아사히카세이(旭化成) 팀을 응원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 역전 경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전 경주는 일본에서 시작되어 발전한 육상 경기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릴레이 형식으로 정해진 구간을 달리며, 배턴 대신 어깨띠를 넘겨, 팀의 함께 타임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경기로 개최된 것은 1917년 열린 ‘도쿄 천도 50 주년 봉축·도카이도 역전 도보 경주’입니다. 이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 1920년에 대학 대항의 ‘하코네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 후 1957년에 실업팀 대항의 ‘전일본 실업단 대항 역전 경주 대회’ 통칭 ‘뉴이어 역전’이 시작됩니다. 역전 경주의 특징은 ‘고보누키(ごぼう抜き)’와 ‘조기 출발(繰り上げスタート)’이 아닐까요? ‘고보누키’는 한 선수가 여러 선수를 앞질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달아 선수들을 제쳐 나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통쾌합니다. 그리고 ‘조기 출발’은 선두와 규정 이상의 차이가 벌어진 팀에 대해, 어깨띠를 받지 못한 상태로 다음 주자가 출발하는 규칙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깨띠의 흐름은 끊겨 버리고, 다음 주자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어깨띠를 건네주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보는 이마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역전 경주는 육상 경기에서도 특이한 단체경기로, 한 구간을 달려내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승리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팀이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개인의 실력을 고려해 전략을 짜고, 달릴 순서를 정해 팀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모습도 역전 경주의 또 한 가지 매력은 아닐까요?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미야자키에서는 여러 역전 경주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도 있습니다. 말의 기운을 받아 올해는 달려보지 않으실래요?

아트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페스타의 상세 정보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mif.or.jp>)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